

장성군 지방자치 경쟁력 우수성 입증...전국 82개 군 중 5위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분석 결과...전남 군 단위 '최고 성적'

경영활동 전국 4위...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 긍정 평가

장성군의 지방자치 경쟁력이 전국 82개 군(郡)단위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자치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장성군은 10일 최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조사·발표한 '2023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 자료에 따르면 515.7점을 기록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종합 5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에선 1위에 해당하는 점수로 전국 군 단위 평균인 443.9점보다 70점 이상 높았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인구·제조업·일자리·소비력 등을 나타내는 정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의 근간을 파악해 수치화한 종합 자료다.

경영자원·경영활동·경영성과로 구성되며 장성군은 경영활동 부문에서도 전국 4위, 전남 1위에 오르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확정과 카카오테이터 센터 구축 가시화, 인구 유입 촉진, 신성장 동력 창출 노력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6년간 도전해 확정된 장성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은 남면 장성나산단 1만 9800㎡ 부지에 국비 1001억원을 투입해 건립된다.

2027년 착공해 2029년 완공 예정이며 의료와 치유관광을 접목한 치유경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구소 인건에 구축되는 4900억원 규모의

장성 카카오테이터 센터는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설계와 설비 구축,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한다. 내년 7월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10월 착공할 계획이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통한 3814가구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은 진원·남면 일대에 9500명 규모의 인구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 8기 들어 '음식'을 콘텐츠로 한 관광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교두보도 확보했다.

백종원 대표의 (주)더브코리아, 씨제이(CJ)푸드빌과 잇따른 업무협약으로 장성 먹거리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기회를 잡았다.

장성군은 민선 8기 공약인 장성 5대 먹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해 음식과 관광을 연계한 '미식 관광시대'를 활짝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전국 상위권 포함은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



장성군이 최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조사·발표한 '2023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5위에 전남 1위 차지했다. (사진=장성군 제공)

한 장성 실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준 군민과 공직자 덕분"이라며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 지역과 향후 모두가 자랑스러워

하는 장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담양군, '향촌변호사' 위촉 대면 무료 법률상담 제공

담양군이 군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향촌변호사'를 위촉했다.

담양군은 지난 6일 담양과 연고가 있는 김혜인 변호사를 향촌변호사로 위촉하고 11일부터 본격적인 대면 법률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담양은 관내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와 지소가 없는 상태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법률서비스인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홈터 등이 있지만 대면 상담을 위해서는 인근 광주광역시외의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게다가 군 소속 변호사 채용공고에도 현실적으로 변호사 지원자가 없어 찾아가는 법률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향촌변호사를 통해 전화상담만이 아닌 대면 법률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상담은 담양군이든 누구나 가능하고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 전 분야에서 1:1 대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므로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만 쓰면 사전일정에 따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 폐광지역 개발사업 예타 선정...전남도 개발 속도 낸다

5643억 규모 경제진흥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복합관광·스마트팜단지, 의료·식품농공단지 추진

전남도가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조기 폐광한 화순광업소 지역의 경제진흥개발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도 예타 대상에 함께 포함했다. 화순 폐광지역 개발사업 규모는 5643억원 규모다.

조사 대상은 골프장·리조트·수목원 등이 포함된 '복합관광단지'를 비롯해 의료·식품 등 '특화농공단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예타 조사 운용 지침에 따라 약 9개월 이상의 타당성 조사 기간 동안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사업 설계의 적정성, 비용 대비 효과성(B·C) 분석 등을 거쳐진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예타 조사 대상에 화순 탄광 내 청정메탄을 산업단지 조성, 역사박물관

관, 추모 공원 조성 사업을 포함 시킬 예정이 다.

또 강도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한 강도 유지 관리비도 24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국회와 관련 부처에 집중 건의 하고 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화순 폐광지역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지역균형발전 부분의 사업까지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해 화순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최우수 3회 저력...나주시, 지역 먹거리 지수 'S등급·대상'



나주시가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S등급·대상'을 수상하면서 먹거리 정

척 우수성을 전국에 과시했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는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 활성화 정

도와 이를 위한 지자체의 실천 노력을 평가 하는 지수다.

농식품부와 aT는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 159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촌·도농복합형 평가와 69개 자치구 대상 도시형 시범 평가를 병행해 우수 지자체 25곳을 선정·시상했다.

나주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최고상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평가지표 중 '지역 먹거리 계획 공적 추진 체계 구축'에 있어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 농가 조직화 교육, 음식물 쓰레기 감축 정책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주=기동취재본부

구례군 공무원, 특수 공법 교량 승상 공사 현장 견학

구례군은 12월 8일 시설직렬(토목) 공무원들이 특수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국도 17호선 서시1교 승상 공사 현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서시천 기본계획에 따라 서시1교를 1.2m가량 들어 올리는 공사가 지난 10월 시작됐다. 구례군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공사가 이뤄진 경우가 드물어 시설직렬 공무원이 특수 공법을 접하는 기회가 적었다.

군은 시설직렬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 시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교량 승상 공사는 2024년 2월 말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수해 방지 효과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박진호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